

# '가짜 필터' 노후 경유차 부착의혹 사실로

### 환경부, A사 미인증 필터 사용 80여대 확인...물량 배정 중단 올해 보급예정 소형차용 모두 성능허용기준 충족, 사업 재개

가짜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만들어 노후 경유차량에 부착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DPF 제작업체인 A사에 대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DPF 부착 지원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DPF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시한 전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다. 지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DPF 부착 비용의 90%(국비 50%·지방비 50%)를 지원해왔다.  
A사가 제작한 DPF 중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보관 중인 1800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미인증 필터를 사용한 80여 대(4.5%)가 확인

됐다. 타 제작사의 경우 보관 장치의 10%인 894대를 표본조사 했지만 미인증 필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올해 지원 예정인 소형차용 DPF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27일부터 사업을 재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든 복합소형 DPF 8종(총 24대)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장치별 PM 저감 효

율은 92.5~99.4%로 허용 기준인 8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소형차용 장치가 전체 지원 물량의 95%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중·대형용의 경우 하반기에 지속 조사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DPF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단했던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강흥경찰, 교통사고예방 현수막 개척

강흥경찰은 강흥군에 협조해 최근 강흥군 각 읍·면에 교통사고예방 현수막을 개척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광주 동부소방, 구급대원 응급분만 교육 추진

광주 동부소방서는 임산부 119안심콜 가입 등록 제공 등 출산가정 안전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임산부 맘(Mom)이 안심+ 서비스 관련 지난 22일 구급대원 대상 응급분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진경찰서(사)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업무협약식

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고평차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나주경찰, 모범운전자회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모범운전자회 나주지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경찰 협력단체 모범운전자회와 함께하는 간담회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여수소방, 새내기 소방관 15명 임용장 수여식 개최

여수소방서는 26일 신규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완도해경, '찾아가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갱신교육' 유치해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29, 30일 이틀간 섬마을 주민을 위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갱신교육 출장강의'를 노화읍 소재의 완도소안수협 노화지점에서 도서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광주역 앞 5·18 펠뮌 발언' 전광훈 목사, 서울서 수사 받는다

### 광주 북부경찰, 서울 중앙경찰에 사건 이관

광주에서 5·18 왜곡·펠뮌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로 이관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 일체를 서울 중앙경찰서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

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인의 소행' 등 펠뮌성 발언을 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

난달 초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중앙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

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전 목사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서울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내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산모 모유 늘려줘요" 21억 상당 판매한 침출차...식약처 "거짓"

### 민들레 등 침출차를 속여 부당 이득 취득

민들레 등 침출차를 산모의 모유 증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황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또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판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

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 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폭우로 인한 맨홀 추락 막자' 안전망 점검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광주 북구 도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설치한 맨홀 추락방지 안전망 점검을 하고 있다.

### 빗길 만취 운전한 30대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술에 취해 빗길 차량을 몰다 추돌 사고를 낸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분께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동화 IC 합류 지점인 국도(면도 2차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B(35)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돌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빗길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성=김수권기자